

순천 원도심에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LOCAL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시, 건물 임대인·입주 기업과 상생협약 체결

노관규 시장 “쇠퇴하는 원도심에 도시 침술”

순천시가 쇠락하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남문터광장에서 ‘원도심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수도권 등 콘텐츠 기업의 이전은 시가 정월박람회 이후 문화콘텐츠 산업을 도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콘텐츠 기업이 모여드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결과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 기업과 작가들은 순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순천 이점을 결심했다.

협약식에는 순천시와 건물 임대인 대표,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했다.

협약에는 입주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

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의 적극 노력, 반값 임대료 등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건물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원도심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이후 입주할 콘텐츠 기업들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시장은 “원도심은 순천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중심지로, 이번 클러스터 입주는 쇠락하는 원도심을 도시침술 전략으로 다시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전한 기업들은 지역에서 돈을 벌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으며 원도심 상권은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최근 남문터광장에서 ‘원도심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건물 임대인 대표는 “기업들이 순천으로 이전한다는 게 이제 실감 난다. 앞으로 북적거릴 원도심이 기대된다”며 “입주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지역 상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대표는 “동료 기업들과 함께 순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순천을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3월 글로벌 웹툰기

업 케냐즈와 오노코리아 이전에 이어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둔 콘텐츠 기업 20여개사를 원도심 클러스터에 입주시켜 국가정원과 원도심 일대에 조성 중인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광양, 드론방제·비료 살포 지원

20일까지 접수...7~9월 실시

광양시는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및 비료 살포에 대한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작 드론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론방제를 통해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량은 총 900ha에 사업비는 850만원이며 이달에 신청을 받아 집중방제 시기인 다음달부터 9월까지 드론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희망하는 오는 20일까지 항공방제업으로 등록된 지역농협 또는 방제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드론방제에 도열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노린재류 등 주요 병해충을 방제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차와 지역문화의 만남’ 전시

보성, 16일까지 참여자 모집

보성군은 오는 16일까지 ‘차와 지역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 2025년 하반기 한국차박물관 기획 전시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차문화 중심지로서의 보성의 정체성을 문화예술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성 차 문화를 창작 소재로 한 시각예술이며 작가 및 차인 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보성 관내외의 예술가 또는 단체, 차문화를 계승·활성화하고 있는 차인 단체 및 다원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문학, 비디오아트, 유물 전시 등이며, 전시 작품 중 최소 30% 이상은 차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작가가 직접 해설자로 나서는 ‘차와 예술의 만남-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전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6차례에 걸쳐 차례대로 진행된다. 회차별 전시 기간은 평균 19일이며, 총 6명의 작가 또는 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17일 전후로 발표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화순, 만원임대주택 갱신·신규 공급

기존 입주자 12명 재계약 제외...“맞춤형 주거 지원”

화순군은 만원임대주택 첫 갱신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존 입주한 신혼부부세대 중 2자녀 이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1차) 입주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계약 갱신 시점이 도래했다. 임대료는 월 1만원으로 유지되며, 재계약 시 최대 4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갱신 대상자 중 일부는 입주 이후 결혼해 신혼부부가 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신혼부부형’ 대상자로 전환된다.

단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갱신을 위한 입주 자격 요건 검토 과정에서 총 12명의 입주자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직으로 인한 타 지역 진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으로 확인됐다.

군은 개별 안내와 함께, 재계약 불가 사유를 상세히 고지하고, 타 주거 지원 정책

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면적 59.8㎡(24평형)의 임대주택 10호를 기존 입주 신혼부부 세대에게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수요 조사 결과 최종 신혼부부 9세대가 오는 7월 이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은 1호는 이번 만원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2자녀인 신혼부부 세대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고흥, 도서·연안 해양쓰레기 상시 대응

‘청정고흥호’ 사각지대 투입

고흥군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 피해와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도서·연안 해역에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 수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양쓰레기는 조류와 풍랑에 따라 어장

·항로·해안가 등 광범위 해역에 유입된다. 특히 갑 양식장 등 어업시설 철거 이후 발생하는 시설 잔재물은 해상 부유쓰레기로 전환돼 항해 장애나 어선 충돌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도서 지역은 수거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워 정비가 지연되기 쉬운 만큼, 더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군은 다목적 정화선 ‘청정고

흥호’를 중심으로, 유실 어구, 부유 쓰레기, 도서 적치 쓰레기 등을 지형과 시기에 따라 구분해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

‘청정고흥호’는 수심이 얕고 접근이 어려운 해역까지 진입할 수 있어, 도서·연안의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어선 항로, 양식장 주변 등에 연중 수거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도 작업을 이어나가 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장흥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7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흥,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선정 사업비 74억 확보...정주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장흥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7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공모 당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2025년 초부터 본격적인 제도전을 준비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회진면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면밀히 발굴했다.

공모 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장답사, 자료수집, 주민 설명회 개최, 대면 및 현장 평가 준비에 나서는 등 모든 절차에 공을 들였다.

이번에 선정된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회진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성 군수는 “공모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열의가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유지에 뛰어들어 농촌지역을 살려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사내명인명예회원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